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관 중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35: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라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벧전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중원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장: 조진권



여름 단기선교

복음의 씨 뿌리고 뿌려진 씨 다지고

3개국 추가, 7-8월 중 일제히 진행

여름 단기선교 대상지역이 추가되었다. 수단과 몽골, 파키스탄과 케냐 등 4개국 외에 방글라데시와 인도, 스리랑카에도 단기선교팀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4개국 중 수단은 김영대 선교사의 일시 귀국에 따른 대리 사역자(박태양 선교전도사 외 4인) 파송으로 포함되었으며, 나머지 지역들은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단기선교의 성격대로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 선정되었다. 그러나 금번에 추가된 3개국은 이미 작년 단기선교를 통해 뿌려진 씨를 다지고자 새롭게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선교위원회는 방글라데시 등 3개국을 위해서 이미 단기선교에 참여하여 헌신했던 젊은이들 중 대원을 선발하기로 하고, 이들을 통해 이미 복음을 들은 현지인들의 신앙상태를 점검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육 사역 및 전도 사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단기선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은 어제 진행되었으며, 선교위원회는 이번 주 중으로 파송 대상자들을 선정할 방침이다. 성도들의 계속되는 관심과 기도의 동력이 있어야 하겠다.

교육세미나

천국일꾼 양성 백년대계

6월 28-29일, 교회학교 전 교사 대상

교육연구소를 제13교육위원회와 연합하여 6월 28일과 29일 양일 저녁에 걸쳐 교육세미나를 개최한다. "교회학교 100년을 생각한다"를 주제로 교과과정, 교사와 교제 문제, 조직과 재정, 그리고 행정 등 교회학교 전반의 문제를 폭넓게 다루게 될 금번 세미나는 이미 사랑의 두기로 헌신하고 있는 교회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여론을 수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미나는 주제발표(바형용 목사—성경에 나타난 신앙교육과 초대교회의 신앙교육, 우리나라의 신앙교육 / 이승수 목사—충현교회 신앙교육의 어제와 오늘)와 분임토의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대상자는 교회학교 전 교사이다. 특히 금번 세미나는 분임토의에 역점을 두어 참가대상자 중 사제에 분임토의의 그룹을 선정하여 해당 주제에 관해 미리 충분히 생각하도록 격려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토론과 여론 수렴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였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단기평신도선교훈련생 해외단기 선교훈련

선교위원회는 총회선교훈련원(MTT)과 연합으로 단기평신도선교사 훈련과정(MTTC) 훈련생들을 대상으로 해외단기선교훈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들 훈련생들은 기본 선교이론과 과정을 이수한 직간접 선교사 지망생들로 7월 6일부터 14일까지 스리랑카에서 현지지의 선교상황에 대하여 듣고 배우며, 현지적응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은희 선교전도사 케냐에 파송

정은희 선교전도사가 6월 중 주선교사의 신분으로 케냐에 파송된다. 6월 중으로 파송될 정 선교사는 이미 케냐의 엘레 지역에서 사역 중인 고은민 평신도선교사와 협력 사역을 하면서 새로운 사역지 개척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은희 선교사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복음의 씨가 힘있게 뿌려지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많은 기도가 요청된다.

제3차 학습·세례

6월 27일 찬양예배시

예배위원회는 99년도 제3차 학습세례식을 6월 27일 찬양예배시에 갖는다. 교회학교 학생들 중 학습 세례 대상자들은 각 부처에서 신청하면 되고, 교구 소속 성도들은 교구 구역에서 신청하면 된다.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중요한 금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신앙이 다져지고 온전히 확립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야 하겠다.

날짜	시간	학습지	장소	세례지	개회 및 집회	장소	유아세례지	장소
6월 13일 (주)	12:00-15:00	가곡교로 (양정원 목사)	교목관 314호	세례당 (양정원 목사)	교목관 307호	교목관 307호	교목관 307호	교목관 314호
6월 20일 (주)	12:00-15:00	성경교로 (양정원 목사)	교목관 314호	교목관 (양정원 목사)	교목관 307호	교목관 307호	유아세례당 (양정원 목사)	교목관 314호
6월 27일 (주)	12:00-15:00	구분교 (양정원 목사)	교목관 307호	구분교 (양정원 목사)	교목관 307호	구분교 (양정원 목사)	구분교 (양정원 목사)	구분교 (양정원 목사)
6월 27일 (주)	15:00-18:00	문당 (양정원 목사)	문당	문당	문당	문당	문당	문당

결식아동을 천국일꾼으로

소위 부족한 것이 없는 동네로 알려진 강남 일대에도 소년소녀가장,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가정,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절대적 빈곤과 더불어 지역적 특성상 높은 상대적 빈곤감까지 느끼면서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제13교육위원회에서는 봉사위원회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중등3부를 주무부서로 하여 결식아동들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들을 돕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동시에 양생의 복음을 전하여, 이들을 점차 천국일꾼으로 양성해 나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자로 12명을 선정하여 시작할 일임이 앞으로 겸손히, 조화롭고, 그리고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들은 기도해야 하겠다.

교역자 인사

교회는 조철수 목사(13교구, 신촌가정부 지도)를 5월 9일부터 교회성장연구원 지도에 임명하였다. 한편, 민병훈, 오대균, 김봉환(가 총신대원 1년 재학) 등 3인을 본 교회 선교전도사로 임명하였다. 이들은 선교위원회에서 사역할 선교사 후보로서 99년 말까지 인턴과정을 밟게 된다.

교회 주변 대청소

6월 9일에 실시

지난 6월 2일에 실시하고 했던 교구별 교회 주변 대청소가 우선 관례로 한주일 연기되어 6월 9일(수)에 실시될 예정이다. 봉사위원회의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선행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위임목사 동성

김성관 위임목사는 6월 7일부터 30일까지 휴가를 갖는다. 이 기간을 통하여 영육의 강건함을 얻고 후반기 사역을 위한 재충전을 이룰 수 있도록 성도들은 기도 중 동참할 수 있어야 하겠다.

조금만 더 예배와 줄음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예 예배시간만 되면 줄리는가?’

겨울엔 좀 낫다. 날씨가 완연한 초여름의 길목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예배 중 성도들의 고개는 하염없이 떨거진다. 그러다, 한여름 생각해보면 계절에 맞출 수 없는 일이다. 가만해 잠시잠시 직주교도 생활한 상태를 유지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문제는 하나님께 향한 순전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기가대감 없이 드러지는 예배는 ‘예배 건디기’라는 자극적인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줄음으로 채워진 예배를 뒤로 하고 줄음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에서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순교적 믿음의 자취를 볼 수 있겠는가? 주보다 뒤져서 거리고 앞사람 표정을 살피고 조금만 여유가 주어지면 줄 준비를 하는 식의 태도로는 절단교 성령의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

바른 예배는 사실 월요일부터 시작된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분투한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 같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할지라도 토요일 오후부터라도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김창인 목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올바른 증인

(이사야 43:1-13)

"신자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1. 사랑의 하나님

(1)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름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1절)
하나님은 우리가 쓰는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우리의 몸과 영혼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발표하시고 그 계획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지혜를 부여받았습니다.

(2) 하나님은 구주이십니다

"...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 내 지는 여호와 네 하나님 이요 이스라엘의 지극한 자요 내 구원자 이라 ..." (13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절)
예수님은 죄와 살인이 없으셨지만 죄인을 부르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므로 아무런 흠과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죄로 인하여 상처받은 자의 영혼을 고쳐 주시고 죄를 범하여 생긴 손해까지도 보충해 주십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나 재산을 버리고 남의 집 바위에 되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어서는 짐승의 자리에게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용서해 주시고 아들의 명분과 권위와 불것을 다시 회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어찌하여 죄인을 찾아 와서 구원하여 주시고 도리어 의인을 돌보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깨끗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의인이라는 사람은 자칭의 인물이요 거짓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불의하면 서 의인인 게 의식하는 사람은 멀리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솔직하게 내어 놓고 회개하는 사람을 건지십니다.

(3) 하나님은 죄인을 지명하여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시는 분입니다

"...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1절)
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의롭고 엄격히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죄인을 가운데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가치가 달라집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주인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 대접이 달라집니다. 돌멩이도 보잘판 않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2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하나님은 재책은 드시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새 생 끝날까지 보호하여 주십니다.

(4) 하나님은 회생을 치러 주시는 분입니다

"...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두리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망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34절)
"속량물"은 구원받을 자의 생명을 대신하여 내어 주는 보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에서 건지시는 반면에 애굽 사람들을 홍해에서 멸망케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신 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 주기 위하여 선교사들의 피를 흘려 회생을 치르셨습니다.

(5)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복귀를 세계에 명명하시는 분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리라 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니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능히 도와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네 아들을 완강에서 이끌며 네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54절)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잡힌 북방과 남방의 나라들에게 그들의 불의한 소유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고향으로 돌려 보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고국으로 돌려 보내기 위하여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 하나님의 증인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책임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에게서 효자 신자가 되어야 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피차에 덕을 세우고 불신자

들에게는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져 가는 세상에 소금 노릇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그들로 중인을 세워서 자기의 율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 (9, 10, 12절) '증인'이라는 말 씀이 세 번 나옵니다. 신자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1)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올바른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 (10절)
하나님의 증인인 신자는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로 알아야 바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기가 좋거나 지식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 내라" (8절) 영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의 눈이 어두운 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그래야 올바른 증인이 됩니다.

(2) 하나님만 믿고 순종해야 올바른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믿으며 ..." (10절)
자신을 믿는 사람은 교만한 자이고 사람을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고 악마를 믿는 사람은 악독한 자이고 흠이 나 돌이나 나무를 믿는 사람은 무생물처럼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야 올바른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악마를 이기신 하나님이 믿는 신자는 담대해져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애가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격하면 아가를 믿어줍니다. 생애도 내게 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자는 쓸데없는 격정이 앞서고 또한 자신의 것이 아까워서 도무지 헌신할 수 없고 증인의 수고는 더욱 감당할 수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동정하심을 믿어야 올바른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억울함을 참는 자라야 올바른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나 내 손에서 능히 간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13절) 세상에는 고생은 사람이 하고 칭찬은 제 사람이 받는 경

우가 많습니다. 또한 죄를 범한 사람은 더 잘 살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약한 자의 죄를 뒤집어 쓰고 고생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신자는 낙심이나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빛난 생활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라야 올바른 증인 노릇을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올바른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루가 짧으면 오는 세상에서 하루가 더 길어집니다. 피조물 세상에서 하루를 더 사는 것보다 천국에 가서 하루를 더 사는 것이 결코 손해일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올바른 증인이 됩니다.

(3) 하나님만 자랑할 마음이 있는 자라야 올바른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 자랑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증인 노릇을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몸은 풀처럼 시들고 인간의 영광은 꽃처럼 떨어지고 인간의 계획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인간의 능력은 지렁이처럼 무용하고 인간의 생명은 풀 같아 매한 이슬처럼 떨어진다든 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증인이 됩니다.

3. 결 론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감사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에게 기뻐하시어 이미 주신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더 좋은 복을 주시어 근심과 걱정을 모르는 승리로 살게 하시기다 세상을 이별하는 날에 가서 나라로 영접하여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증인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자랑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권능이 무한하시고 자기 백성을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신 자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니 손대 자가 없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해로 인도하시니 실패가 없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니 모자람이 없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니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같으나 곧 행복이 따라 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올바로 전하여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김성관 목사

하나님의 역사

(에스겔 11:18-21)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온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지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나님께서는 때로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지식과 지혜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으로 온 땅에 충만히 거하십니다.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큰 혼돈에 빠졌고, 21세기의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지만, 이 모든 사실 앞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뿐입니다.

돌이켜야 한다니

아마도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니' 그대 무슨 말인가. 나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십일조를 내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온갖 종류의 선행을 힘써 하고 있는데 ...'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 다. 그들은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대단히 잘 지켜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선언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모든 미온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18절).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지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19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되는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십니다. 일지한 마음, 곧 내가 되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중오와 부수, 비열함과 분별을 멀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점으로 받았습니 다. 그들의 온갖 필요들은 충족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대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당장의 필요와 현실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분주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20세기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꿈으러온 아마도 미국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 현실적인 욕구를 좇아 미온 물건과 가증한 것과 더불어 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회복은 우리들의 단순한 행동 몇 가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돌이키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

로 돌이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중심에 있는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같지만, 그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아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과 가증한 일들을 버리고 돌이켜야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기와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

거절하는 사람들

이 모든 하나님의 복되신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온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21절). 사탄의 영악한 꾀임에 빠져 육체의 쾌락을 좇아가지 마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을 상대로 장난을 치면서 여러분을 바보로 만드는 일을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하도록 자신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은혜와 심판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 중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잊어버리는는 안됩니다. 반드시 주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에스겔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향해 간절히 외치시는 음성, 곧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이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러하여 지금껏 놓으시고 영광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됩니다. 그 자리에서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십시오.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의 은혜는 우리들의 모든 이해를 넘어서십니다. 그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그의 은혜는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순결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할 때까지 자신을 죄 가운데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돌같이 굳은 마음에서 살갗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리를 맡기십시오. 그 은총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게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그의 은혜는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순결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할 때까지 자신을

죄 가운데 방치해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 은총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게 시작될 것입니다.

심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돌같이 굳은 마음에서 순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잠깐만이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돌이킨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말입니까? 이를 위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당시 상황을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

이킨다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일지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도록 말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으시는 새 영,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마음은 어디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0절).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고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원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한없는 은총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축복과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서 누릴 행복과 풍요를 위해서, 때로는 정치적인 의미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지 모릅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단기선교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단기선교와 장기선교를 구분하는 일차적 조건은 기간이라 할 수 있겠다. 대체로 3년 이하의 선교사역을 단기선교, 3년 이상일 경우 장기선교로 구분한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단기선교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파송받아 약 3년 동안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으니 단기선교사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단기선교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현재까지 펼쳐지고 있는 단기선교사역, 예수님 당시의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단기선교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살펴보자.

1.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모든 족속이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러 단기선교사로서의 복음의 씨앗 뿌리기 사역이 단기선교사의 교회개척 사역으로 이어지는 협력을 필요로 한다.

2. 창의적 접근지역의 확대

창의적 접근지역이란 선교제한지역으로 목사 선교사가 들어올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현재 창의적 접근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막대한 경제력을 앞세운 무슬림이 아프리카 등의 여러 지역을 무슬림화하고 있으며 공산권에서도 기



△ 98년도 방글라데시 여름단기선교 중 시골에서 주로 사용하는 작은 배를 타고 얻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낙도로 펌프를 설치하기 위해 떠나는 모습

독교가 전파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선교사가 머무를 수 없는 지역에 하나님은 단기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3. 젊은 사역자의 증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젊은 시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 교회에도 단기선교단원으로 참가했던 젊은이들이 방글라데시로 제과송 받아 사역하고 있으며 수단, 스리랑카, 인도 등으로도 헌신된 젊은이들이 나날 준비를 하고 있다.

4. 장기헌신자 발굴

단기선교 사역을 통하여 단기선교단원들 중 장기선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혹은 소원하여 기도하는 이들에게 선교지에서의 구체적인 훈련을 통하여 선교사로의 소명을 확인하는 기회를 갖게 한다.

5. 신앙훈련

선교지에서 접하는 예기치 못했던 여러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역사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기도회를 실시하여 기도 동역자나 또는 제정 및 문서(편지 발송) 후원자로 섬기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역을 돕고 있다. 단기선교단원으로의 경험이 선교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게 하여 섬기는 곳에서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6. 선교동행회

단기선교단원으로 참가했던 젊은이들이 사역 후에는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기도회를 실시하여 기도 동역자나 또는 제정 및 문서(편지 발송) 후원자로 섬기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역을 돕고 있다. 단기선교단원으로의 경험이 선교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게 하여 섬기는 곳에서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7. 초기 선교사역

단기선교는 점차 분업화되어가고, 전문화되어 가는 선교 상황 속에서 선교 초기에 씨앗 뿌리는 사역으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단기선교사역을 단순히 젊은이들의 선교여행으로 생각하거나 효과를 기준으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기선교 사역은 복잡다관종 시대에 적합한 매우 중요한 선교 사역의 한 형태이다. (심경영 선교원회 간사)

선교연구원

LMTC 집중강의 과정을 개설합니다

선교연구원에서는 여름단기선교 참가자 중 평신도선교사훈련과정(LMTC)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이수 중이지 않은 자, 혹은 단기 평신도선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나 여건이 맞지 않아 현재 토요과정에 등록하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강의과정을 아래와 같이 개설합니다.

금번 과정은 주요 LMTC와 마찬가지로 총회 선교훈련원(MTI) 인준과정으로서 본 과정을 마치고 소정의 과제물을 제출한 자는 총회 LMTC 1학기를 수료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수강료는 1만원입니다. 다만, LMTC 자격 이수과정은 수강신청자가 일정한 수에 도달할 때만 개강하며, 단기선교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은 신청자의 수에 관계없이 개강됩니다.

특히 금번 여름 단기선교 참가자 중 LMTC를 이수하지 않았거나, 이수 중이지 않은 이들은 금번 과정에 기본적으로 참여하며, 6월 16일(수)과 23일(수)에 진행되는 강의는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날 짜	시 간	강 의	강 사
6월 9일(수)	21:00-24:00	성경적 선교신학(구약) I, II	이승학 목사
6월 11일(금)	22:00-01:00	비교종교학 I, II	차병준 목사
6월 16일(수)	21:00-01:00	선교와 언어습득 I, II	장양백 선교사
6월 18일(금)	22:00-01:00	선교역사 I, II	김동호 목사
6월 23일(수)	21:00-01:00	세계선교동향 / 선교동원과 및 단기선교 / 국내 외국인근로자 사역 / 단기 평신도 선교의 사역과 준비	이승수 목사
6월 25일(금)	22:00-01:00	성경적 선교신학(신약) 장·단기 선교의 탐사역	정갑신 목사

★ 모든 강의는 베다니홀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선교위원회(선교관 406호, 전화 552-8200, 교환 356번)로 하십시오.

모국 방문 입양아 우리교회에서 초청 -민박객 모접-

국외로 입양되어 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그들을 입양한 가족과 함께 뿌리를 찾아 모국을 방문합니다.

어려서 한국을 떠난 입양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맞이할 가정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방문 일시 : 7월 3일(토) 오후 4시

4일(주일) 오후 3시

신청방법 : 선교위원회(선교관 406호)로 직접 방문 신청

전화 문의 : 552-8200(교환 356-8)

* 민박 신청 접수는 6월 20일(주일)까지 받습니다.

△ 98년도 초청잔치 장면



전도의 첫 열매를 맺었어요

최 현 호(유년부 1학년)

저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제가 친구 만난 평강은 여자 친구였어요. 저는 친구네 집에 놀러도 가고 사치송해 지나며 금방 친해졌어요. 그 친구 외할머니는 권사님이시래요. 그런데 친구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저는 친구와 친구 엄마, 아바마 전도를 했어요. 친구 엄마께서는 어린 제가 전도를 하니 교회에 나가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친구를 먼저

교회에 보내줬다고 하었어요.

친구가 교회에 나오기 전날 밤에 엄마는 제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전도의 첫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친구네 은 식구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요.

친구는 4주일에 예배에 참석했어요. 전도를 해보니 너무 기뻐요. 예수님도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말씀을 접하는

기쁨

정혜라(소년부 교사)

96년 1월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웠던 첫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도 교사로서 봉사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96년 2월 교회학교 교사가 부족하며 교사로서 봉사하면 좋겠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교사양성부에 등록하고 교육을 맡았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순종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봉사할지 원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자는 작은 마음에 부족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지난달 보니 그것은 아버지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와 1:1로 더 가까워지길 원하신단 것입니다. 주일을 손꼽아 기다렸다가 숨차게 뛰어서는 기쁨에 찬 아이들의 모습에서, 말씀을 배우려고 집중하는 아이들의 환한

얼굴에서 늘 부족한 저로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말씀으로 용기와 힘을 주신 주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변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제목이 있거나 가족 중에 누가 아플 때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아이들의 믿음에서, 작은 손을 가슴에 대고 "예수님이 여기에 계세요" 하는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느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직접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아이들과 공부하면서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이들과 공부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린이와 같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늘 깨우쳐 주시던 아이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배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의 부족함을 많이 깨달았으며 그러기에 그 전보다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시작만 가르칠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소우주인 아이들을 통해 내 자신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천사도 호모다 만한 교사의 직분을 부족함 저에게 주시고 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라는 꿈나무들을 위하여

이성간의 감정 잘 조절하기



박홍규(안수사서, 중등1부 교사)

성경은 남녀간의 사랑을 우리들 사회를 위하여 사용한다. 하나님은 남녀간의 사랑을 귀하게 만드셨다. 사랑은 피차로 유익하게 한다. 따라서 사랑이 서로를 유익하게 못한다면 이는 건전히 못한 사랑이요 사기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회생의 사랑이다. 이 세상이 가르치는 사랑은 이기적인 연애감정에 치우쳐 있다. 그래서 진정으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내 자신의 진정한 성장과 발달에도 해를 준다.

우리 집에 작은 꿈나무가 있었다. 아버지는 어린 꿈나무의 꽃을 모두 따 주시면서 그 꽃에 열매가 맺히면 그 꿈나무의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다. 중등부 학생들은 앞으로 많이 성장해야 할 사람들이다. 장차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할 꿈나무

들이다. 따라서 우리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그런 사랑과 연애감정은 잘 조절하고 절제해야 한다. 성숙한 연인이나 누나, 형이나 오빠들의 연애도 꼭 결혼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성숙하지 못한 나이에 연애 감정에 휩쓸려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 그런데 조절과 절제는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또 예수님께 기도드려야 한다.

물론, 이성교제에 별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있다. 이들은 이성교제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부끄러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다. 시간강박이나 불친절한 교제에 빠질 위험성이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학창시절에는 그것이 오히려 큰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내 경험으로 보아 이런 학생들 중에 큰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부모님을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 주일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부 모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혹은 봉사하는 동안 우리의 아이들은 의젓하게도 자기가 속해 있는 부서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탁아부나 시청각실, 놀이터, 교회 이웃 저곳에서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전과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가장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탁아부는 매주일 오전 8시 45분부터 오후 2시 25분까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탁아부 교사들은 0세 - 4세 아이들은 물론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까지 돌보고 계십니다. 2, 3, 4부 각 예배마다 모두 다른 120분의 교사가 1:1로 아이들을 맡아서 같이 성경동화도 듣고 간식도 먹고 놀이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은 담당 교사의 따뜻한 기도도 받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청각실(교육관 2층)은 오후 12시 20분부터 1시 50분까지 주로 청년2부 지체들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청년2부 네 명의 교사가 약 20명 정도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블록을 쌓거나 그림을 그리고 종이접기를 하고, 또 찬양을 부른답니다. 이때 준비한 찬양으로 청년2부 집회때에 특송을 하기도 합니다. 시청각실에는 다른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날씨가 활동하기에 좋아짐에 따라 놀이터의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대체로 유년부와 초등부의 아이들입니다. 이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을 기다리면서 매주일 따뜻한 햇빛을 받으면서 미끄럼틀 타고 그네를 타고 오토 가며 이곳에서 친구들과 즐거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본당 앞마당이나 교육관 옆, 뒤 등에서 여러 명의 또래 아이들이 모여 뛰다니며 놀면서 하찮은 교제를 나누답니다. 이들도 부모님과 같이 집에 돌아가려고 기다리는 아이들입니다.

부모님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를 하는 동안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주일을 잘 보내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들이 좀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4부예배가 끝날 때까지는 아이들을 탁아부에 맡기고 그 후 시간에는 놀이터에서 또래 친구들과 뛰놀게 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박주영 기자)

감 사

김은미(중등2부 기자단)

감사가 잊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편안하게 생활하다 보니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예수님께 우리는 제대로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그 감사함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을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으로 주님을 믿고 살린다면 그 감사함을 지금부터라도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서는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이럴 때 너희들에게 고맙단다”

중등2부 교사들

1.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고맙고 사랑스러워.
2. 너희들이 고맙다는 편지를 보내 줄 때.
3. 너희들이 선생님을 찾아주면 눈물겹게 고맙단다.
4. 분반·성경공부 시간에 열심히 질문할 때.
5. 회회가 열릴지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는 순교자의 후예입니다

김동식 목사(서울, 1교구)



만주 길림에 쌍기천자라는 마을이 있다. 일찍부터 이곳에는 복음이 전파되어 70, 80여 명이 모이는 교회와 그 교회에 21세의 최태봉, 23세의 김광욱이라는 두 청년이 있었다. 1931년 9월 만주사변이 일어난 후 종중부터 교회를 압박하던 공산당원들은 길림으로 몰려들었고 쌍기천자교회에도 공산당 가맹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최태봉, 김광욱 두 청년은 그리스도의 도 위에 굳게 서서 공산당의 강요를 완강히 거절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공산당 폭도들은 두 청년과 다른 교인 5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말았다. 이것은 토마스 목사, 그 후 초기 선교사인 백운찬의 옥사 이후로는 최초의 한국 개신교회 순교로 전한다.

1935년 1월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파송 만주선교사 한경회 목사가 만주벌판에서 공산 비적에게 목숨을 잃었다. 그 보고서는 이렇게 남아 있었다. "총회 파송 한경회 목사는 1월 1일 위화촌 호림교회장로회 집도행의 길을 출발하여 우림교회에서 설교하고 길강근 씨 등 제직 4인과 함께 눈길을 타고 오소리 강변으로 하현으로 전진하다가 1월 4일 공산당 비적에게 잡힌 바 되어 중국인 비적은 친원인을 요구하나 조선인 공산당은 살해하기로 주장하다가 마침내 한 목사를 총살하고 1인은 탈출하고 3인은 행방불명이다. 얼음 구덩이에 던지려고 끌고 가던 중 한 목사를 먼저 살해하였으니 3인은 얼음구덩이에 넣은 것으로 추측된다." 한경회 목사는 1914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만주지역 선교에 헌신하였고, 만주를 향하여 떠날 때 "만주 선교는 나의 원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간 것으로 유명하다.

일제는 신사참배문제로 모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였고, 또한 일본 천황을 신격화하여 집집마다 사신상을 걸어 놓게 하였다. 또한 그 사신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해도 경찰에 붙들려 가던 살벌한 시

대였다. 이렇게 시국이 어지러운 때에, 하루는 일본 경찰이 박희흥 전도사에게 "천황도 지옥에 가느냐?"고 물었다. 박 전도사는 이에 담대히 "천황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유향불이 타는 구덩이에서 죽지도 못하고 불덩이 속에서 서서 믿지 못한 행을 한단말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일본 경찰은 즉시 불경죄라는 명목으로 그를 붙잡아 투옥하였다. 결국 박 전도사는 갖은 고문과 고초를 당하여 순교하였다.

항해도 제령을 서부교회 일택진 목사의 딸 임인옥은 아버지지의 신앙을 이어받아 제령을 서부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맡고 있었다. 그녀는 6·25가 일어난 후에 도일하지 자기 집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신앙을 지도하였다. 유엔군이 북상하자 공산군은 민족주의자 기독교인들을 사살하고 도피하였다. 이때 교인들이 제령을 보란듯이 구금되었다가 끌려가 한사흘씩 총살당했다. 드디어 임인옥 선생 차례가 되었다. 그는 도망한 말투로 "나는 기도하다가 죽겠어요" 하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잠시 후 총소리가 나더니 임인옥 선생은 기도하던 자세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당시 그녀의 나이가 18세였다.

광주 양림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박석현 목사는 6·25전쟁 중에도 주일예배를 인도했다. 그는 뒤늦게서야 교회 집사와 청년들의 간청으로 가족과 함께 피난길에 올라 낙동대 전도사 가정에서 온밀하게 예배를 드리며 지냈다. 이때 인민군 1개 부대가 집을 포위하고 박 목사 일행을 연행하여 숲속에 처형하였다. 이때 아들 원택은 중일중학교 5학년이었는데, 마음씨 좋은 어는 인민군이 자주 도망치라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제가 보이는 저 천국, 나도 가고 싶단다" 하면서 아버지를 따라 온 석구와 그리고 신 전도사와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총을 맞아 순교하였다.

장석팔 장로는 충남 예산에서 출생했으며, 1933년 장로가 되어 용봉교회에서 봉사하였다. 해방 후 용봉면장, 국민회 회장 등을 맡아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던 중 6·25를 만났다. 그는 교인 평단을 제출하라는 공산군의 요구를 거절하여 체포된 후 1950년 9월 11 일 돌에 맞아 순교하였다.

1950년 9월 29일, 계속해서 밀려던 국군이 유엔군과 함께 군을 재정비해 반격을 가하던 때였다. 어느 날 전남 영광군에 있는 법정교회에 인민군들이 몰려왔다. 당시 이 교회 목사는 김종헌이었다. 그는 성격이 강직하고 정의감이 강했다. 밀려오는 인민군을 피해 교회를 떠나라는 교인들의 계속된 권유에도 불구하고 김 목사는 피난가기를 거부했다. 반격에 밀려 후퇴하던 인민군들은 법정교회를 쳐들어와 김 목사와 가족, 교인 24명을 끌고 갔다. 영광을 쪽으로 끌려가던 김 목사와 가족들은 계속해서 인민군에게 전도를 했다. "당신들을 예 믿고 하나님에 평안을 얻으시오. 예수 믿는 길만이 참 행복을 줍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만 행복이 와?" 인민군들은 끌려가면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몇몇에게 전도를 한 김 목사를 그로 누구든지 않았다. 몇 차례 억센 구둑발에 제멋대로 그때마다 김 목사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는데 내게 힘을 주옵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찬송을 부르게 시작했다. 전도와 찬송 소리에 귀가 따가웠던 인민군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지 그에게 양젓물을 몰아라고 속여서 먹였다. 결국 김종헌 목사는 고통 가운데 순교하였다.

1950년 10월 7일 전라남도 영암에 있던 연산교회는 공산군에 의해 불탔다. 교회가 타는 것을 본 기삼도는 안타까워하며 교회 주위를 맴돌다가 공산군에게 붙잡혔다. 기삼도는 목포고등학교 3학년이 재학 중이었는데 기삼도의 고교 앞문에서 독 문은 죽창과 동등이 없어 숨지고 말았다. 기삼도는 기암초 목사의 친한 친구였으며 민족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의 목적을 두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목사가 되려고 작정한 학생이었다. 그러나 그는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순교자가 되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순교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에 바탕으로 하여 이어온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만약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순교의 자리로 부르신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그 순교의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좇은 순교적 삶의 자국들이 있는 곳

- 6월에 자녀들과 함께 방문할 만한 신앙 유적지들 -

국적으로 6월은 순교선열들의 뜻을 기리는 달이다. 순교선열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난히 많다. 어찌면 동쪽의 구원을 위한 사마 바울의 예라는 심정이 이들을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끔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이 6월에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생명의 복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바친 순교자들과 선교사들과 신앙의 선배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자리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신앙유적지	위 치	비 고
양화진 묘지	서울 마포구 합정동 145	개신교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와 그 가족들의 묻힌
순교자기념관	경기도 용인군 양지면 주거리	한국 개신교 순교자 300인의 유물
제암교회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제암리	일제의 박해를 23명이 사수
증심대 기독교박물관	서울 동구자	우리나라에서 가처지는 기독교유물이 가장 많이 소장된 곳
교산교회	강화도	강화에 첫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교회
언더우드 사택터	서울 중구 경동	국내 첫 개신교 세례가 베풀어지고 한국 장로교 신학교육이 시작된 곳
기독교100주년기념탑	인천 해안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제물포 성곽을 기점으로 세운 탑
고대도	충남 부여 오천면 상시도	1832년 귀족들이 최초로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한 곳
순양원 목사 순교기념관	전남 여천군 읍촌면 신동리	순양원 목사의 순교를 기념하여 애양원 안에 세운 기념관

교구영성훈련을 다녔으니 구역장의 직분

박 현 순(집사, 14교구)

가정의 달 5월 프로그램과 회합의 계절, 14교구 영성훈련은 그 주 프로그램과 회합 속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영성훈련에는 뭔가 새롭게 은혜받고 또 결심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구역식구들과 함께 참석을 했다. 작년만 해도 직장일로 온전한 훈련을 받기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반복짜리 훈련과는 사뭇 달랐다.

수년간 구역장을 하다보니 타성에 젖어 내가 과연 주님의 기쁘신 태도로 순종하는 일꾼인가를 자문해 보았다. 처음 구역장을 맡고 일했을 때가 기억난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귀한 직분을 나에게 도한 어떻게 주셨을까? 거듭 감사하던 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었는지? 구로동 달동네, 전하번도로 없이 주소만 달랑 가지고 동네 동북쪽 거장을 찾아가서 심방하고 기도하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양말 한 켤레를 사들고 찾아가고, 이사를 하면 비누 10장을 사들고 다녔던 그때, 아이들이 성장하여 웃이 작아지면 서로



박현순 집사

바꾸어 입히고 어린이용 책을 다 보았으면 또 바꾸어 아버지 구역예배 참석하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였단! 이것이야말로 줄로 채어 준 아름다운 구역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창인 지...

교구 목사님의 '하나님의 삶' 이란 설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나 자신의 깨어짐을 경험하였다. 예수안치, 한미나, 어린이도 참석하여 헤어짐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교구영성훈련은 지금까지의 나를 뒤엎어보게 하고 구역장의 직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지체독소식

유아부

5월 마지막주일을 친교주일로

599년을 벌써 반 가까이 보내면서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어머니들과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떡과 과일을 먹으며 평소에는 시간에 쫓겨 못나누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이를 키우는 것이 땀 흘리는 것과 같다고 누군가 말하더군요. 정성껏 재워서 재료를 준비하고 팔 아드득 쪄는 과정 거치고 기껏 준비해도 한 순간만 눈을 팔면 타버리지요. 정성껏 조리도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씩해서 불맛 같은 눈으로 지켜 주시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미숙 통신원)

유년부

있는 양을 모두 찾고 싶어요

지난 주일 초창전진회가 온 해를 마쳐갔다. 10주일 이상 연속 결석한 장기 결석생들과 교회 근처에 살고 있는 새 친구들이 많이 나와 교회들에게 기쁨을 안겨 주었다. 이날 특별행사로 새 친구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결심하는 열집 기도 시간과 재미있는 인형극을 준비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회회를 통해 자칫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많은 양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또한 한달 전부터 전도찬치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온, 교사들과 매주 토요일마다 어김없이 학동과 노년초등동학전도 특공대 선생님들과 특별행사를 위해 애쓰고 있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다. (유숙희 통신원)

초등부

새 친구 초청잔치 준비

6월 20일에 있을 새친구 초청찬치를 위해 부모님은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으면서도 초등학교 3, 4학년 자녀들이 초등부에 나오지 않는 가정의 학생들을 찾아서 온 가족이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예배 시간이 맞지 않아서 본당에서 드리는 대예배만 참석하고 가시는 학부모님, 집과 교회의 거리가 멀다고 자녀를 집에서 가까운 동네 교회에 보내는 학부모님 모두다 이번 회회에 초등부에서 하고 있는 이 운동에 동참하시어 온 가족이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즐겁게 예배드리고 또 같은 신앙 공동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초등부로 보내 주세요. 저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배 안내 :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307호 (이미숙 통신원)

중등1부

성경퀴즈대회 가토로

6월 20일에 있을 성경퀴즈대회를 위해서 교육과에서 준비 중이다. 이번 대회의 출제 범위는 학생들이 그동안 실교와 분반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부분으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이다. 이 성경퀴즈대회 준비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그동안 배우고 은혜 받았던 성경내용을 복습하고 기도할수 있도록 하리나 더욱 친밀해지며 신앙이 더욱 성숙하기를 바란다. (김범진 통신원)

중등2부

청계산에서 교사야유회

5월 29일 오후 청계산의 우거진 숲에서 향긋한 나무냄새를 맡으며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교사야유회를 가졌다. 선생님들은 교회에서 좀처럼 드러내지 않던 저마다의 별칭과 활기를 마음껏 뽐내며 행복한 한나절을 보냈다. 5월 월례회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작은 음악회, 여름수련회 등을 위한 준비기도를 하였고 우리들이 품어야 할 과제인 보다 나은 평가방법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손은경 통신원)

고등부

학생 사랑의 열정 모아 뜨겁게 진행된 교사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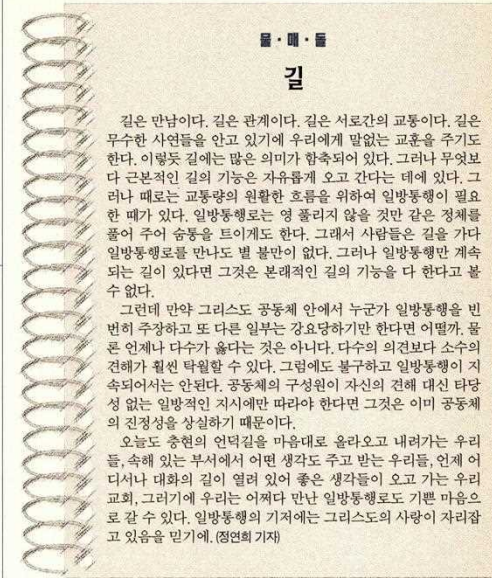


"드르렁 드르렁 푸푸" "빠드드 빠드드" 화음이 열렸다는 단란 기자가 밤새도록 지나가더군요. 40여명 남자 선생님들의 잠자는 모습은 가히 천하가 놀랄만도 했습니다. 자는듯 마는듯 양수리의 어원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잠을 설치웠음에도 상쾌한 아침의 기분은 왜일까요! 이제 곧 만삭이 될 몸은 이끌고 참찬한 선생님, 몸져 누워 계신 부인의 병수발도 뒤로 미루고 참석하신 선생님, 고등부는 이렇게 헌신적인 분들이 계시기에 모든 일을 힘차게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교사 세미나에 처음으로 참석한 교사 2년차인 저로서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기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모두 뒤로 하고 오직 학생들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참석하신 선생님들의 열의가 매시간 주성 열기를 더해가니 급기야 각 조의 토론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에서도 도지사 질문과 답변의 공제 속에서 저는 학생들을 사랑하시는 선생님들의 그 크신 사랑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교사 모두는 서로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며 학생들을 위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할 것을 기도하며 다짐하고 돌아왔습니다. 위로 받도록 아래로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고 위해 주며 나 자신보다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것을 배워 익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일 교사)

청년2부

로마서 강해에 이어 사도행전 강해 시작

로마서 강해가 지난주일 끝나고, 금번 주일부터는 사도행전 강해가 시작된다. 지난 1년간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회원들은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로마서가 끝나는 지난 주일에는 GBS사전에 회원들이 그동안 로마서 공부를 통해 얻은 은혜들을 서로 나누며 교제를 나누었고 그동안의 공부를 마무



물·매·들

길

길은 만남이다. 길은 관계이다. 길은 서로간의 교통이다. 길은 무한한 사연들을 안고 있기에 우리에게 많았는 교통을 주기도 한다. 이렇듯 길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길의 기능은 자유롭게 오고 간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때로는 교통통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일방통행이 필요한 때가 있다. 일방통행로는 영 돌리지 않을 것만 같은 정체를 풀어 주어 승용을 트이게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가다 일방통행로를 만나도 별 불만이 없다. 그러나 일방통행만 계속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본래적인 길의 기능을 다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일방통행을 빈번히 주장하고 또 다른 일부는 강요당하긴 한다면 어떨까. 물론 언제나 다수가 옳다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의견보다 소수의 의견이 훨씬 타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공동체의 구성원이 자신의 전체 대신 타당성 없는 일방적인 지시에만 따라야 한다면 그것은 이미 공동체의 건장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충현의 언덕길을 마음대로 올라오고 내려가는 우리들, 속에 있는 부에서 어떤 생각이 주고 받는 우리들, 언제 어디서나 대화의 길이 열려 있어 좋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 우리 교회, 그러기에 우리는 어쩌다 만난 일방통행로도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다. 일방통행의 기저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리잡고 있음을 믿기에. (정연희 교사)

리짓는 의미로 6월 20일에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성경퀴즈대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 강해와 GBS성경공부를 통해 회원들이 초대 교회의 사도들의 신앙을 본받아 더욱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백영희 통신원)

장년3부

우렁차게 울려 퍼진 신앙 고백



를 열었다. 히브리 11장 본문을 암송함으로써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들이 더욱 성숙해지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회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반별로 심사를 받던 암송자들이 환하게 밝게온 암송 순례를 발휘하였다. 든 기만 하여도 실려가 되었다. 400여명의 장년3부 학생들은 믿음을 위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으로 모든 환난, 핍박을 이길 수 있음을 마음깊이 새길 수가 있었다. (임미숙 통신원)

영역교육부

성경이야기대회

지난 5월 23일 천지 창조, 무너진 바벨탑, 요나와 다니엘,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재미있게 구하여 발표하는 성경이야기대회가 열렸다. 7명의 어린이가 함께 나와서 한문장씩 발표하는 바니 있었는가 하면, 반 전체가 작은 연극을 준비하기도 하는 등 다

채움을 진행되었다. 발표를 하는 어린이들이나 직접 대위에 참가한 어린이, 교회와 교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배우는 시간이었다. (유주원 통신원)

3교구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을 수 있으리요

지난 5월 27일 교주 주원 집종 전도의 날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에도 많은 교구 식구가 모서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짙은 지어 우리의 이웃을 향해 헌한 발걸음을 옮겼다. 전도위원회 지도 목사님의 말씀을 힘입어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을 수 있으리요'의 도전을 받았고, 완한한 마음들이 열리고 회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귀중한 회기가 우리의 이웃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5지역과 협력구역 식구들은 전도 주 양광선 관찰일대에 모여 대선지와 전도의 어려움과 앞으로 계속해야 할 우리의 사명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임을 가졌다. 3교구 식구들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끊임없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전도에 대한 강한 사명감을 갖기를 기도한다. (백영희 통신원)

12교구

'가정 문제 갈등 해소'에 대한 강조

말을 마감하며 지난 주일은 성경전신과 의사인 박종학 집사님의 가정문제 갈등 해소에 대한 강제가 있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며 작은 생활 습관에서도 상처받으며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일들을 피차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며 이해하는 것이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백역을 바꾸어 가면 간단한 사이코드라마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양숙희 통신원)

교회소식 / 목·장발령

알림

- 1. 통서물노회 여전도회 군부대 방문
- 일시: 7월(월) 8:30
- 후원교회당에서 출발
- 여전도회 회장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문의: 반연숙 권사(552-7570)

모임

- 1. 정로 회오색기도회
- 일시: 8월(화) 새벽기도회 후
- 장소: 교육관 109호
- 2. 안진교회 회오색기도회
- 일시: 7월(월) 새벽기도회 후
- 장소: 교육관 109호
- 3. 주일오후기도회
- 일시: 오늘 15:00
- 장소: 감리원회
- 4. 감리원회 월배회
- 일시: 오늘 15:30
- 장소: 선교관 404호
- 5. 교회세미나 전체 준비위원 및 토의 참가자 모임
- 일시: 오늘 15:30

- 장소: 베다니홀
- 6. 경찰전도회 월배회
- 일시: 13일(대음주일) 15:00
- 장소: 매우라기홀
- 7. 교정전도회 월배회
- 일시: 오늘 주일오후기도회 후
- 장소: 감리원회
- 8. 실업전도회 목요기도회
- 일시: 10월(목) 새벽기도회 후
- 장소: 실업인전도회실
- 9. 4교구 협의회
- 일시: 8월(화) 18:30
- 장소: 만나눔 교육자면담실
- 10. 안수침사회 월배회, 부부찬양연습
- 일시: 오늘 15:00
- 장소: 교육관 212호
- 11. 권사회 제1지회 월배회
- 일시: 9월(수) 1부예배 후
- 장소: 사랑방실

남녀전도회

- 1. 바울 12지회 월배회
- 일시: 12월(토) 18:00
- 장소: 원산 레미카를 4층 배당홀 (0344-915-3388)

- 2. 베드로 1지회 월배회
- 일시: 12월(토) 19:30
- 장소: 김진경 집사댁(564-1860)
(동문 안내실 앞 로인)
- 3. 한나 15지회 월배회 및 노방전도
- 일시: 8월(화) 10:00
- 장소: 관악산 매표소 앞
- 4. 예스터 4지회 월배회
- 일시: 8월(화) 11:00
- 장소: 감민홀
- 5. 루디아 9지회 월배회
- 일시: 13일(대음주주) 교구모임 후
- 장소: 교육관 414호
- 6. 루디아 16지회 월배회
- 일시: 8월(화) 11:00
- 장소: 박기원 집사댁
- 7. 미리아 4지회 월배회
- 일시: 8월(화) 10:30
- 장소: 마리아 집사댁

결혼

- 1. 최세훈 군(최성근 성도, 이옥숙 집사의 아들, 17교구)과 김진경 약집영관 목사, 윤오련 권사의 딸) / 10월(목) 12:30 감리원회

- 2. 김 훈 군(김용도 안수집사, 허혜관 집사의 아들, 9교구)과 김영애 약집관 성도, 김효경 집사의 딸, 19교구) / 11월(금) 13:00 감리원회
- 3. 박정환 군(박무남 제, 나순자 씨의 아들, 19교구)과 구현숙 약장승영 집사의 딸) / 12월(토) 13:00 감리원회
- 4. 윤원희 군(윤명남 성도, 정경숙 권사의 아들, 11교구)과 정정호 목사 장녀 씨, 박영자 씨의 딸) / 12월(토) 13:00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별세

- 1. 성선경 성도 (장기복 성도 부친, 1교구 약삼구약) / 5월 30일 별세, 6월 1일 장례
- 2. 김달수 권사 (김학경 집사 부친, 김만관 목사 모친, 이영식 집사 장모, 14교구 광명1구역) / 2일 별세, 4일 장례
- 3. 김윤순 성도 (이연호 집사 모친, 황현희 목사 시모, 14교구 오류구역) / 2일 별세, 4일 장례

세·가·족·을·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790	김혜경	1	청년2부	김행자(1)	803	최희진	19	대학부		816	양은주	19	청년1부	
791	정숙애	2	에스터	백순자(4)	804	최승일	19	대학부		817	강근표	19	청년2부	
792	김소연	6	청년1부		805	김태형	19	대학부		818	박신경	19	청년1부	이건규(7)
793	이혜숙	3	청년2부		806	표정훈	19	대학부		819	이동근	19	대학부	김지현(3)
794	조병식	8	바울	이정훈(8)	807	원지현	19	대학부		820	박영호	19	대학부	김지현(3)
795	윤혜정	19	대학부		808	우정수	19	대학부		821	박수필	19	대학부	
796	최옥자	13	루디아	강현자(14)	809	최유나	19	대학부		822	송희오	8	청년2부	유승곤(8)
797	유영화	13	에스터	허연옥(2)	810	전혜영	19	에바다부		823	조정은	19	에바다부	
798	박형석	15	청년2부		811	이경주	1	청년2부	정옥련(9)	824	민은식	19	에바다부	
799	최정숙	15	청년2부		812	배영미	1	청년2부	정옥련(9)	825	정두환	19	에바다부	
800	박수민	19	대학부		813	김형민	19	청년2부		826	조성환	19	청년1부	
801	김태호	19	대학부		814	오경미	19	청년1부		827	임세희	19	청년1부	이건규(7)
802	김현우	19	대학부	박효열(12)	815	김은미	16	청년2부						

※ 총연합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총헌 증보의 창

- ① 김창민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사를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세우게 하소서.
- ② 28-29일에 열리는 교육세미나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교사들이 사역을 새롭게 다지고 천국일꾼 양성을 위해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 ③ 이집트 현지에서 개최되는 목회자세미나(15-18일)가 무슬림 목회자들의 영적 충진의 기회가 되도록 은사를 하라하소서.
- ④ 제3차 학습세례식(27일)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교육 - 13일, 20일) 하나님의 구사의 은총이 더욱 널리 증거되게 하소서.
- ⑤ 9월 실시하는 교회당 주변 대청소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웃 주민에게 널리 증거되게 하소서.
- ⑥ 금년 여름에 실시될 단기신교와 농어촌전도 사역이 잘 준비되어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 ⑦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 ⑧ 우리 교회와 천국일꾼을 양성하는 일에 더욱 힘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은사를 하라하소서.
- ⑨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사를 하라하소서.
- ⑩ 각 전도회가 전도하는 전도회로 거듭나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 ⑪ 모든 총헌의 성도들이 겸손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들의 신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목·장발령

우리가 바빠야 할 진정한 이유

김인식
(목사, 15교구 지도)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바빠야 할 사람이다.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다들 하는 일들이 바쁘다. 남편들은 남편들대로, 주부들은 주부들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정신 없이 바쁘다. 일전에 주일예배에 빠진 한 성도를 만나서 이유를 물었더니, "바빠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어떤 일로 바빴는지를 물었더니, 친척 결혼식에 참석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물론 개인의 신앙적 자유니, 양심이니 하는 말로 스스로를 자유롭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좀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빠야 할 이유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에서 내세우는 모든 바쁜 이유들 대부분



분리 하나님 앞에서 잠들기 때문에 불과한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든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쁜 사람들이 많다. 뛰어들고 도망갈 만큼 바쁜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돌아야 할 이유가 있다. 그저 몸통으로서 주의를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커다란 방패(?) 틈으로 더 큰 나의 욕심 이 앞설지 않아야 하고 잊지 않은자를 살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빠야 할 이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그 일이어야 하지 않을까.

심·기·는·분·들

원로목사 김창민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소

- 윤영석 제1교구 부목사
마성학 소독부 부목사
송준호 동양회 부목사
이병학 제1교구 부목사
임필석 제1교구 부목사
오정현 제1교구 부목사
서동석 사동석 부목사
홍용구 홍용구 부목사
김재현 제1교구 부목사
박영식 제1교구 부목사
이종국 제1교구 부목사
윤성철 제1교구 부목사
박인근 제1교구 부목사
이인상 제1교구 부목사
최기훈 제1교구 부목사
정훈철 제1교구 부목사
손철 제1교구 부목사
김영수 제1교구 부목사

- 김의철 제1교구 부목사
김재상 제1교구 부목사
노정현 제1교구 부목사
최기현 제1교구 부목사
송기환 제1교구 부목사
최기환 제1교구 부목사
이준 제1교구 부목사
이준 제1교구 부목사
이준 제1교구 부목사
이준 제1교구 부목사
이준 제1교구 부목사
이준 제1교구 부목사
이준 제1교구 부목사
이준 제1교구 부목사
이준 제1교구 부목사

■ 부목사

- 이종석 제1교구 부목사
김정현 제1교구 부목사
정현민 제1교구 부목사
김병태 제1교구 부목사
정혜성 제1교구 부목사
이종석 제1교구 부목사
이종석 제1교구 부목사
이종석 제1교구 부목사
이종석 제1교구 부목사
이종석 제1교구 부목사
이종석 제1교구 부목사
이종석 제1교구 부목사
이종석 제1교구 부목사
이종석 제1교구 부목사
이종석 제1교구 부목사

예배 안내

구분	시간		장소
	I	오전 7:00	
주일예배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주일, 부활절 등특별예배)	본당
	IV	오전 1:00	본당
	V	오전 3:00 (어린이 예배)	본당
	English Service	9:00 a.m.	북가문교회(가문교회)
찬양예배	오전 5:00	본당	
수요예배	12:00 ~ 11:00	오전 7:30	본당
금요집회	오전 7:30		본당
교회대회	오전 4:00		본당